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재귀대명사 습득: 부분집합 원리 위반을 중심으로*

최정아** · 이예식***

(경북대)

Choi, Jeong-A & Lee, Yae-Sheik. (2016). The Acquisition of Reflexive Pronouns by Korean EFL Learners: Focus on their Violation of Subset Principl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4(4), 395-411.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Korean EFL learners acquire English reflexive pronouns in a way of violating Subset Principle in language acquisition. To prove it, this study conducted two experiments of a grammatical judgement test and a story-based truth value judgement test about how Korean learners of English learn reflexive pronouns with two groups of Korean EFL learners : a group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n=103), and a group of Korean college students(n=153). This study found that the subjects showed such a tendency that the less they were exposed to English, the wider domain they allowed for the occurrence of reflexive pronouns' antecedents, and vice versa. Such a domain narrowing acquisition might support the stance tha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s also a process of setting parameters as in first language acquisi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nt that Korean EFL learners acquire reflexive pronouns depending on the innate knowledge of Governing Category Parameter(GCP).

주제어(Key Words): 제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 지배범주 매개변인 (Governing Category Parameter), 부분집합원리(The Subset Principle), 보편문법 접근(UG Access), 재귀대명사(reflexive pronouns)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최정아(2016) 일부를 확대 발전시켜 재작성 되었음.

본 논문을 심사하여 귀중한 조언을 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한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온전히 저자의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 제 1저자 최정아(경북대학교)

*** 교신저자 이예식(경북대학교)

1. 서론

한국어 재귀대명사와 영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지배범주(governing category)의 매개 변인(parameter)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즉 영어는 동일 절 (clause-mate)만을 지배범주로 허용하지만, 한국어는 동일 절을 넘어서 지배범주를 허용한다. 따라서 영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지배범주는 한국어와 비교하면 부분집합에 해당된다 (White 1989b: 158).

이를 Wexler & Manzini(1987: 425)는 학습가능성(learnability)¹⁾과 관련하여 부분집합 원리(The Subset Principle)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부분집합에서 상위집합으로 이동은 일반적인 학습과정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반면에 상위집합에서 부분집합으로 이동은 학습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본다. 부분집합 원리를 모국어 습득과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아동들은 제일 먼저 매개변인의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고 점차 긍정적 증거(positive evidence)²⁾의 입력으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더 큰 값을 택하게 된다. 하지만 부분집합의 원리에 따르면 언어습득은 부정적 증거(negative evidence)의 부족으로 인해 아동들이 매개변인의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학습자가 부분집합 원리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습득한다면, 이는 지배범주와 관련된 언어지식이 학습자에게 이미 생득적으로 존재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목표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결정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결국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이미 지배범주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영어 재귀대명사를 배울 때 부분집합 원리를 위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중학교 3학년(103명)과 대학교 1~4학년(153명) 집단을 대상으로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자한다. 특히 부분집합 원리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선행사 결정을 영어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재귀대명사 습득 시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지배범주를 상위집합에서 부분집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문법성 판단실험(grammatical judgement test)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치 판단실험(story-based truth value judgement test)을 실시하였다.

1)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Pinker1989, Joo2003 등) 다음과 같은 역설적 언어습득 조건에도 불구하고, 언어 습득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i) the lack of negative evidence, (ii) overgeneralization, (iii) arbitrariness in the choice of argument structure

2) 긍정적 증거(positive evidence)는 언어 학습자가 다른 화자의 발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이나 형식적인 지도를 통해 제공받는 언어 지식을 말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지배범주 매개변인(Governing Category Parameter)

지배범주 매개변인은 결속이론(Binding Theory)과 관련된 것으로 대명사, 고유명사, 재귀대명사 등이 자신과 공지시하는 선행사와 결속되거나 자유로워야 하는 위치영역(locality domain)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Wexler & Manzini(1987:421)는 지배범주 매개변인에는 전방대응사와 대명사에 대한 지배범주가 다섯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고 보며, 그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해야만 지배범주가 된다고 주장한다. 아래 표 1은 그들이 지배범주의 다섯 가지 선택사항에 대해 정의한 내용이다.

표 1. 지배범주의 매개변인

Wexler & Manzini(1987:421)

<The Definition of Governing Category>	
γ is governing category for α iff γ is the minimal category that contains α and a governor for α and (a) can have a subject or, for α anaphoric, has a subject β , $\beta \neq \alpha$; or (b) has an Infl; or (c) has a Tense; or (d) has a "referential" Tense; or (e) has a "root" Tense; if, for α anaphoric, the subject of γ is accessible to α .	

첫째, 최소지배 범주 내에 접근 가능한 대주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절(시제 절, 비시제절), 명사구가 이 범주에 속한다.

- (1) Kate said that Alice wished that Mary would persuade Helen to see [June's portrait of herself]

문장 (1)의 경우, 재귀대명사 herself의 공지시³⁾하는 선행사는 명사구 내의 위치한 June

3) 공지시는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는 의미로, 그 조건은 대명사와 재귀대명사가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 (i) John admires him.
- (ii) John admires himself.
- (iii) John said that he felt rather ill.
- (iv) John expected him to feel a little better.
- (v) John talked to Tom about himself.

이 된다.

둘째, 최소지배 범주 내에 어휘적 INFL, 절(시제 절, 비시제절)을 포함한다.

- (2) Kate said that Alice wished that [Mary would persuade Helen_i [PRO_i to see [June's portrait of herself_i]]]

문장 (2)에서 재귀대명사 *herself*의 선행사는 비시제절의 PRO가 되므로, 결국 Helen이 된다.

셋째, 최소지배 범주 내에 INFL 중 시제를 포함(직설법 절, 가정법 절) 한다.

- (3) Kate said that Alice wished that [Mary_i would persuade Helen_i [PRO_i to see [June's portrait of herself_i]]]

문장 (3)에서는 시제가 있는 절의 주어인 Mary가 *herself*의 선행사가 된다.

넷째, 최소지배 범주 내에 직설법 시제(상위 절, 하위 절)를 포함한다.

- (4) Kate said that [Alice_i wished that [Mary would persuade Helen [PRO to see [June's portrait of herself_i]]]]]

문장 (4)의 *herself*의 선행사는 직설법 시제를 포함하는 절의 주어인 Alice가 된다.

다섯째, 최소지배 범주 내에 근본 시제(상위 절)를 포함한다.

- (5) [Kate_i said that [Alice wished that [Mary would persuade Helen [PRO to see [June's portrait of herself_i]]]]]

문장 (5)는 많은 내포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상위 절의 주어인 Kate가 *herself*의 선행사가 된다.

또한 선행사와 관련해서 표 2와 같이 적절한 선행사 매개변인이 있다.

위의 예문 (i)에서 *him*과 John은 공지시 될 수 없지만, (ii)의 *himself*는 John과 반드시 공지시 해야 한다. 그리고 (iii)에서 *he*는 John과 공지시 할 수도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iv)의 *him*과 John은 공지시 할 수 없지만, (v)에서 *himself*는 John을 지칭할 수 있고, Tom을 지칭할 수 있다.

표 2. 적절한 선행사 매개변인

Wexler & Manzini(1987:416 재구성)

<Proper Antecedent Parameter>	
A proper antecedent for A is	
(a) a subject B; or	(e.g., Japanese- 'zibun')
(b) any element B whatsoever	(e.g., English- 'himself')
	(e.g., Japanese- 'kare-zisinf')

앞서 살펴 본 지배범주의 매개변인은 언어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영어의 경우 표 1 지배범주 매개변인 (a)에 해당되는 것으로 재귀대명사는 한정 절(finite clause) 또는 비 한정 절(non-finite clause)의 동일 절 내에 결속되어야 한다. 다음 (6b), (6c) 예문에서 himself의 선행사는 John이 아니라 Fred이다. 이는 John이 재귀대명사와 동일 절 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6d) Keith와 John 역시 himself의 선행사가 될 수 없다.

- (6) (a) John_i washed himself.
 - (b) John_i said [that Fred_f washed himself_{f/*i}]
 - (c) John_i wanted [Fred_f to wash himself_{f/*i}]
 - (d) Keith_k said [that John_i said [that Fred_f washed himself_{f/*i/k}]]
- White(1989b: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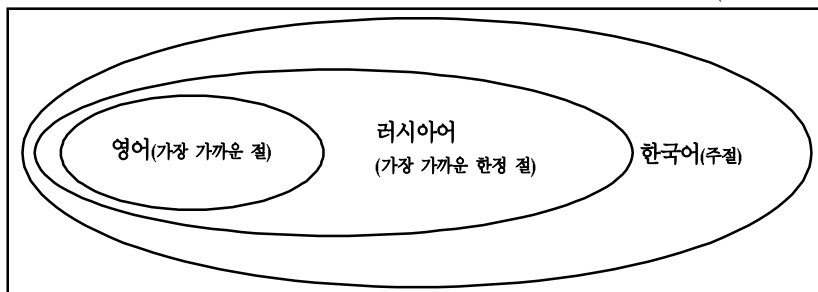
하지만 러시아어의 경우에는 표 1 (c)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배범주는 시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위의 (6b), (6d) 예문은 동일 절 내에 Fred가 himself의 선행사가 되며, (6c)의 경우에는 Fred와 John 둘 다 himself의 선행사가 된다.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에는 표 1 (d)의 지배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배 범주 내의 근본 시제(상위 절)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6b), (6c)의 문장에서 Fred와 John 둘 다 himself의 선행사가 되며, 또한 (6d)의 문장에서는 Fred 이외에도 John과 Keith가 모두 선행사 역할을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어 · 러시아어 · 한국어의 대응어는 서로 대응어의 지배범주 매개변인이 부분집합과 상위집합의 관계를 가진다. 다음 그림 1은 세 언어 간의 지배범주에 따른 집합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한국어는 가장 큰 상위집합에 해당되며, 영어는 가장 국소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분집합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어는 영어에 대해서는 상위집합이고, 한국어에 대해서는 부분집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의 지배범주의 관계

(White 1989b: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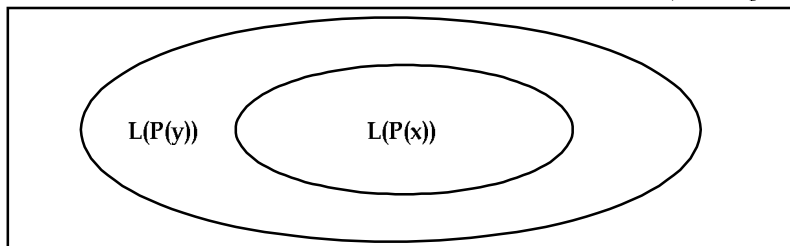
2.2. 부분집합 원리(The Subset Principle)

MacLaughlin(1993: 1)는 언어 학습자가 긍정적 증거를 토대로 매개변인들을 부분집합에서 더 포괄적인 상위집합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분집합의 매개변인 'x'에 의해서 생성된 문장 $S(x)$ 은 상위집합의 매개변인 'y'에 의해서 생성된 문장 $S(y)$ 과 양립할 수 있다. 반면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모국어 화자가 매개변인들의 부분집합의 값에 해당하는 'x'에 의해서 생성된 문장들 $P(x)$ 만 포함하고 있는 언어를 습득한다고 한다면, 우선 이런 문장을 허용하는 문법 $L(P(x))$ 를 형성하고, 그 상위집합에 속하는 매개변인 값 'y'에 의해서 생성되는 문장 $P(y)$ 의 문법 $L(P(y))$ 는 형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목할 사실은 모국어 화자가 부분집합 'x'에 속하는 문법 $L(P(x))$ 을 형성하면, 그 화자는 추후에 상위집합 'y'에 속하는 문법 $L(P(y))$ 을 형성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상위집합의 문장 $S(y)$ 의 경우에는 'y'를 생성하는 문법 $L(P(y))$ 과 부분집합 'x'를 생성하는 문법 $L(P(x))$ 둘 다 외는 양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습자는 긍정적 증거의 토대만으로는 옳지 못한 사례의 경우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MacLaughlin는 언어 학습자는 상위집합에서 부분집합으로 이동하여 매개변인 값을 취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으며, 그런 사례들은 언어 학습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림 2. 매개변인 부분집합의 값(x)과 상위집합의 값(y)으로 생성된 문장 포함관계

(MacLaughlin 1993: 1)



앞서 2.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Wexler & Manzini(1987) 역시 Chomsky(1981)의 지배범주 원리를 다섯 가지의 매개변인 값으로 구분하여 계층적 관계로 표현하였다. 이때 매개변인 값의 계층적 관계는 각각의 매개변인 값의 크기에 따라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위계적 순서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매개변인 값의 크기는 각 매개변인 값에 의해 산출되는 문장 집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어떤 매개변인 값 'y'가 다른 매개변인 값 'x'에 의해 생성되는 문장 S(x)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문장들 S(y)도 만들어 낸다면, 이때 이 매개변인의 값 'y'는 다른 매개변인 값 'x' 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상위의 집합에 해당된다.

또한 매개변인 값의 계층적 관계는 Ellis(1985)의 유표성(markedness)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만약 매개변인 값이 작은 값을 가지면 무표적(unmarked)이며, 값이 커질수록 유표적이 되다가 최대의 매개변인 값에 도달하면 유표성은 가장 커진다고 본다. 이것을 아동의 모국어 습득 단계에 적용하면, 우선 아동은 제일 먼저 가장 무표적인 최소의 매개변인 값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긍정적 증거를 통해 새로운 언어 지식을 얻게 되면서 더 넓은 유표적인 상위 값을 취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아동들은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3. 실험

<연구 가설>

한국어의 재귀대명사 선행사 지배범주가 영어 재귀대명사 지배범주보다 상위집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모국어보다 적은 지배범주를 가진 영어 재귀대명사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그 답을 구하고자 아래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질문>

① 중학교 3학년과 대학생의 두 집단은 영어 재귀대명사 선행사 결정에서 부분집합 원리를 위배하는가?

4) Ellis(1985)는 유표성(markedness)을 Chomsky의 보편문법의 핵심, 주변문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Related to the concepts of core and periphery is Chomsky's theory of markedness. Core rules are unmarked; that is, they accord with the general tendencies of language. Periphery rules are marked; that is, they are exceptional in some way. (Ellis 1985: 194)

② 영어에 노출된 정도가 다른 두 집단의 영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결정 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3.1. 실험대상 및 목적

실험대상은 중학교 3학년과 대학교 1~4학년의 두 집단으로 구성하였다⁵⁾. 우선 첫 번째 중학교 3학년 집단은 대구시 소재 모 중학교 3학년(평균13세) 남·여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중학생 집단의 구성원은 평균 영어 학습기간이 6.59년이며, 해외연수 경험이 4.85%(1개월~1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집단은 학교 정규과정에서 영어 재귀대명사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상태이다.

두 번째 대구 경북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1~4학년 집단은 남·여 153명(평균 23.3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학생 집단의 구성원은 평균 영어 학습기간이 12.11년이고 해외연수 경험이 11.11%(1개월~4년)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이 집단도 영어 재귀대명사를 학습한 경험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학생 집단보다 더 많이 재귀대명사의 지식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이다.

본 실험은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목표어의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결정 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학습자들이 지배범주와 관련하여 부분집합 원리를 위배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2. 실험방법

3.2.1. 실험 1. 문법성 판단 실험

문법성 판단 실험(grammatical judgement test)은 제2언어 습득 연구자들이 언어 학습자의 내재된 문법성을 가장 편리하게 측정하는 방법이라 알려져 있다(Hannan 2004). 본 실험에서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지배범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 문장에서 재귀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선행사를 찾게 하는 4지선다형의 객관식 10문제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총 다섯 가지의 문장 유형으로 우선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one-clause sentence) 2개, 내포절에 시제를 가지는 두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two-clause sentence with tensed embedded clause) 3개, 내포절에 시제가 없는 두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two-clause sentence with non-finite embedded clause) 3개, 그리고 부가 절을 포함하는 두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two-clause sentence

5) 실험 대상으로 영어 능력 수준이 상이한 중학생과 대학생 집단을 선정할 이유는 목표어의 발달 단계에 따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with adjunct clause) 2개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관련된 실험방법은 피험자들에게 실험에 관련한 개인적인 특이사항을 기입하게 한 후,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문제를 제한시간 20분 내에 정답으로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중학생 집단의 경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영어 어휘의 한글 뜻을 실험문항 아래에 제시해 주었으며, 또한 실험내용 중에 애매한 보기는 그 의미표현을 분명히 밝혀 주어 실험의 변수들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3.2.2. 실험 2.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치 판단 실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치 판단 실험(story-based truth value judgement test)은 이야기로 구성된 한 단락의 영어 지문을 읽게 한 후, 등장인물의 행동의 목표 대상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 행위자를 찾는 유형이다. 앞서 3.2.1 문법성 판단 실험과 마찬가지로 피험자들이 영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지배범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를 찾게 하는 문제유형이다. 역시 실험문항도 4지 선다형의 객관식 10문제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이 실험방법은 피험자들이 한 단락 이상의 영어 지문을 읽고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를 찾는 유형이므로, 앞선 문법성 판단 실험 문제보다 더 많은 시간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실험이다.

구체적인 실험문제는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one-clause sentence) 2개, 내포절에 시제를 가지는 두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two-clause sentence with tensed embedded clause) 3개, 내포절에 시제가 없는 두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two-clause sentence with non-finite embedded clause) 3개, 부가 절을 포함하는 두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two-clause sentence with adjunct clause) 1개, 그리고 내포절에 시제가 있는 세 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방법으로 두 집단의 피험자 모두에게 제한시간 25분 내에 정답을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문법성 판단 실험과 마찬가지로 중학생 집단의 경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휘 뜻을 각 문항 옆에 제시해 주었다. 실험절차는 중학생과 대학생 두 집단이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문법적 판단 실험(1차) 이후에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치 판단 실험(2차)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3.3. 실험결과

3.3.1. 집단 간의 실험 평균 점수 및 오답률

문법성 판단 실험의 평균 점수(10점 만점)는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학생 집단(평균

7) 그리고 중학생 집단(평균 6.36)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4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치 판단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생 집단(평균 5.69)이 중학생 집단(평균 4.66)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두 실험의 결과를 기반으로 재귀대명사 습득 시 대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더 목표어 문법에 가깝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 문법성 판단 실험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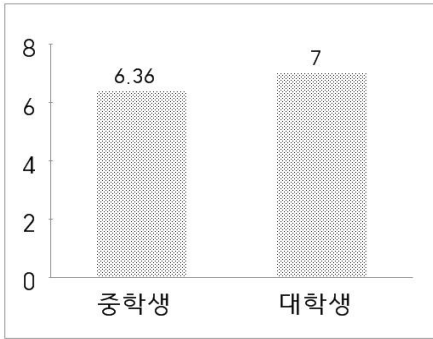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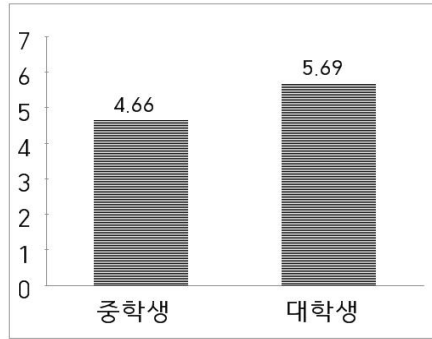


그림 4.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치 판단 실험 평균점수



또한 중학생과 대학생 집단이 보이는 오답률을 분석하면 표 3과 표 4와 같다. 앞서 지배 범주와 관련하여 영어는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를 국소적 위치에만 결속시키는 반면에 한국어는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위치의 선행사를 모두 결속시킨다는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실험 1과 실험 2의 문항에서 특히 '비국소적 선행사'를 가지는 보기와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를 갖는 보기를 선택하는 비율을 알아보았다. 그 비율을 오답률로 보고 표 3과 표 4에서 중학생과 대학생 집단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표 3. 실험1-문법성 판단 실험의 집단 간 오답률 비교

문제 번호	보기	오답 응답자 평균 비율(%)			
		중학생		대학생	
		중학생 오답률	평균(%)	대학생 오답률	평균(%)
1	① 비국소적 선행사	16.5	12.6	9.8	6.2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8.7		2.6	
2	① 비국소적 선행사	27.2	18.95	39.9	26.5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10.7		13.1	
3	① 비국소적 선행사	15.5	24.2	13.7	9.15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8.7		4.6	
4	① 비국소적 선행사	16.5	13.6	14.4	9.5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10.7		4.6	

5	①, ② 비국소적 선행사	15.5	18.45	21.6	17.65
	④,⑤,⑥,⑦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21.4		13.7	
6	② 비국소적 선행사	32	21.85	24.8	17.3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11.7		9.8	
7	② 비국소적 선행사	42.7	30.1	40.5	23.2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17.5		5.9	
8	① 비국소적 선행사	15.5	15.05	19	14.1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14.6		9.2	
9	① 비국소적 선행사	9.7	9.2	3.6	4.75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8.7		5.9	
10	① 비국소적 선행사	5.8	10.65	14.4	8.85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15.5		3.3	

표 4. 실험2-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치 판단 실험의 집단 간 오답률 비교

문제 번호	보기	오답 응답자 평균 비율(%)			
		중학생		대학생	
		중학생 오답률	평균(%)	대학생 오답률	평균(%)
1	① 비국소적 선행사	31.1	33	30.1	25.2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35.0		20.3	
2	① 비국소적 선행사	26.2	15.6	26.1'	14.35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4.9		2.6	
3	① 비국소적 선행사	27.2	18.9	30.7	18.3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10.7		5.9	
4	① 비국소적 선행사	35.9	22.8	49.7	26.5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9.7		3.3	
5	①, ② 비국소적 선행사	48.5	28.6	45.1	24.85
	④,⑤,⑥,⑦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8.7		4.6	
6	② 비국소적 선행사	9.7	16	15.7	15.7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22.3		15.7	
7	② 비국소적 선행사	24.3	15.6	13.1	8.2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6.8		3.3	
8	① 비국소적 선행사	21.4	15.1	15.7	9.15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8.7		2.6	
9	① 비국소적 선행사	35.0	25.8	37.9	23.2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16.5		8.5	
10	① 비국소적 선행사	75.7	44.6	68.6	37.9
	③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13.6		7.2	

위의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중학생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대부분 문항별 '비국소적 선행사' 및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 보기를 선택하여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3.2. 실험의 집단 간 차이 비교

중학생과 대학생 두 집단 간의 문법성 판단 실험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치 판단 실험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분석하면 표 5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우선 실험 1. 문법적 판단 실험에 대해서는 중학생 집단은 평균(6.36), 표준편차(2.60)로 나타나며, 대학생 집단은 평균(7.00), 표준편차(2.06)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의 유의확률은 $t=2.19$, $p=.029^*$ 로 나타나므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실험 2.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치 판단 실험에 대해서는 중학생 집단은 평균(4.66), 표준편차(2.51)로 보이며, 대학생 집단은 평균(5.69), 표준편차(2.17)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두 집단 간 차이의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t=3.48$, $p=.001^{**}$ 로 나타나므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표 5에서 두 가지 실험에 나타나는 두 집단 간의 유의확률은 문법성 판단 실험보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치 판단 실험에서 더 유의미성을 보인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표 5. 실험내용에 따른 집단 간 비교 · 분석

	중학생(N=103)		대학생(N=153)		df 자유도	t	p 유의 확률
	M 평균	SD 표준편차	M 평균	SD 표준편차			
<실험1> 문법적 판단 실험	6.36	2.60	7.00	2.06	254	2.19	.029*
<실험2>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치 판단 실험	4.66	2.51	5.69	2.17			

(* $p < 0.05$ ** $p < 0.01$ *** $p < 0.001$)

4. 실험결과 분석 및 논의

앞서 재귀대명사의 결속영역의 지배범주 매개변인은 한국어와 영어가 차이가 있다는 사

실을 살펴보았다. 한국어는 근본 시제(상위 절)를 포함하는 반면에 영어는 가장 가까운 주어만 포함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지배범주에서 한국어는 상위집합에 해당되고, 영어는 부분집합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Berwick 1985, Wexler & Manzini 1987).

또한 2.1 지배범주 매개변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습가능성 측면에서 학습자가 긍정적 증거로 인해 매개변인의 값을 부분집합에서 상위집합으로 옮기는 것은 학습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학습자가 상위집합에서 부분집합으로 이동하는 것은 부정적 증거의 부재로 인해 학습될 수 없다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런 점을 착안하여 학습자가 매개변인의 값을 상위집합에서 부분집합으로 이동한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목표어 학습의 결과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결국 이런 현상은 언어 학습자가 이미 부여받은 언어 능력 즉 보편문법의 매개변인의 도움으로 이와 같은 언어 현상을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를 통해 4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인 영어학습자인 중학생과 대학생 집단은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결정 능력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실험 1과 실험 2의 오답률 분석을 통해서 대학생 집단은 목표어 문법에 가까운 '국소적 선행사'를 선택하였지만, 중학생 집단은 '국소적 선행사'나 '국소적 또는 비국소적 선행사'를 취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결과 차이는 중학생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목표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결정에서 모국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학생 집단은 목표어 문법에 가까운 재귀대명사와 선행사 결정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학습자의 중간언어⁶⁾ 지식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대학생 집단은 영어 노출환경에 평균 12.11년으로 중간언어 지식이 과도기, 안정기 상태에 해당되므로 목표어 문법에 가깝게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중학생 집단은 영어 노출환경이 6.59년으로 중간언어 지식이 비안정적인 상태이므로 모국어 문법이 더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영어에 노출된 정도가 다른 두 집단의 목표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결정 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학생이 중학생 집단보다 훨씬 더 목표어 문법에 가깝게 재귀대명사 선행사를 선택하였다. 우선 실험 1의 문법적 판단 실험에 대해서는 중학생 집단은 평균(6.36), 표준편차(2.60), 대학생 집단은 평균(7.00), 표준편차(2.06)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의 유의확률은 $t=2.19$, $p=.029^*$ 로 나타나므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 2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치 판단 실험에 대해서는 중학생 집단은 평균(4.66), 표준편차(2.51)로 보이며, 대학생 집단은 평균(5.69), 표준편차(2.17)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두 집단 간의 차이의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t=3.48$, $p=.001^{**}$ 로 나타나므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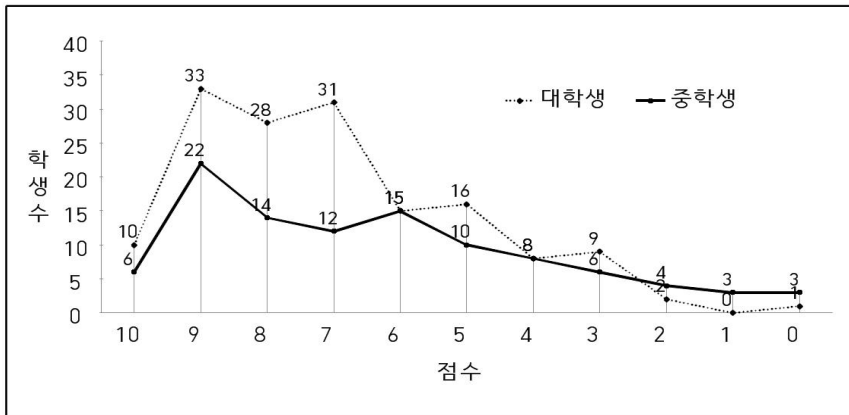
6) 제2언어 습득에서 학습자가 목표어에 도달하기 위해 진행되는 과정 중의 학습자의 언어체계를 Selinker(1972)는 '중간언어'라고 명명했다. 중간언어는 주로 모국어나 목표어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지만, 경우에 따라 모국어나 목표어에 속하지 않는 학습자 자신만의 문법적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

있다. 더불어 두 가지 실험에 나타나는 두 집단 간의 유의확률은 문법성 판단 실험보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치 판단 실험에서 더 유의미성을 보인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두 실험 결과를 통해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재귀대명사 습득에서 부분집합의 원리가 위배되는 경우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우선 중학생 집단과 대학생 집단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만, 모두 영어 재귀대명사 문법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였다. 중학생 집단(103명)과 대학생 집단(153명)을 대상으로 도출된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대학생 집단 : 중학생 집단 기준). 실험 1은 6.36 : 7(10점 만점), 실험 2는 4.66 : 5.69(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 집단에서 보이는 실험 평균을 살펴보다라도 결과 평균이 우연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중학생과 대학생 집단이 목표어 재귀대명사를 습득하는 것으로 보아 두 집단 모두 부분집합 원리를 위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그림 5와 그림 6에서 실험 1, 2의 정답 분포도에 따른 학생 수를 살펴보다라도 중학생 집단 내에서도 피험자들이 영어 재귀대명사 문법을 정확하게 습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 1의 재귀대명사의 문법적 판단 실험의 경우 중학생 집단의 경우에 10점 만점에 해당되는 학생이 6명, 9점에 해당되는 학생이 22명에 이른다. 그리고 대학생 집단의 경우에 10점 만점에 해당되는 학생이 10명, 9점에 해당되는 학생이 33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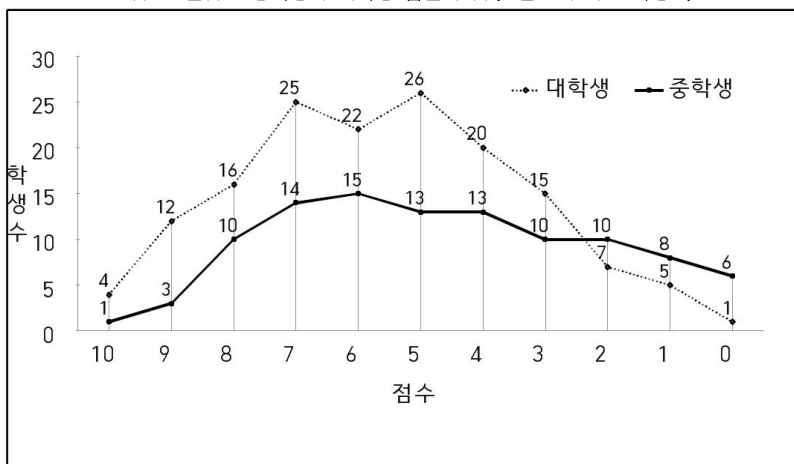
그림 5. 실험1-중학생과 대학생 집단의 점수 분포에 따른 학생 수



(중학생 집단-실선표시: 103명, 대학생 집단-점선표시: 153명)

더불어 그림 6은 실험 2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치 판단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중학생 집단의 경우에 10점 만점에 해당되는 학생이 1명, 9점에 해당되는 학생이 3명으로 나타난다. 대학생 집단의 경우에 10점 만점에 해당되는 학생이 4명, 9점에 해당되는 학생이 12명에 이른다.

그림 6. 실험2-중학생과 대학생 집단의 점수 분포에 따른 학생 수



(중학생 집단-실선표시: 103명, 대학생 집단-점선표시: 153명)

넷째, 두 가지의 실험방법은 한계를 보완하는 다른 방식의 실험이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실험 1의 한계를 보완하고 유의미한 실험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실험 2가 실시되었다. 먼저 실시된 문법성 판단 실험(실험 1)에서 노출시기가 증가하고 학습 수준이 높아지는 대학생 집단(평균 학습기간 12.11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출 시기가 적고 학습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는 중학생 집단(평균 학습기간 6.59년)보다 실험 평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단순히 피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귀대명사의 지식 정도는 파악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정답을 선택한 이유 및 모국어 간접 현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실험 1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험 2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치 판단 실험방법을 통해 피험자의 모국어 전이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실험 2에서 피험자들은 모국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지배범주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그들은 실험문항에서 제시하는 글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를 찾으려고 시도하였으므로 동일 절을 넘어서 선행사를 찾으려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오답률 분석을 통해 중학생 집단의 경우 모국어의 영향으로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를 동일 절 밖의 주절 혹은 문장을 넘어서 선택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선택하게 되는 실험문항 보기(‘비국소적 선행사’ 또는 ‘국소적이거나 비국소적 선행사’)를 취하는 경우가 중학생 집단보다 더 적게 나타난다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학습자인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목표어 재귀대명사 습득 과정이나 경향을 통해 중학생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영어 재귀대명사 결정 능력에서 약하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실험 집단의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재귀대명사를 습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지배범주의 매개변인 값을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범주를 옮기는 현상으로, 즉 상위집합에서 부분집합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결과는 앞서 살펴 본 Wexler & Manzini(1987:425)가 주장하는 부분집합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학습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없는 논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실험결과와 관련하여 언어 학습자의 재귀대명사 선행사 결정 능력은 아마도 타고난 내재된 언어 지식 즉 보편문법(UG)의 지배범주의 매개변인의 작용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부분집합 원리와 관련해서 다른 언어습득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복. (2009). *영어 통사 의미구조의 이해*. 한국문화사. 111-116.
- 최정아. (2016).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습득과정에 대한 보편문법적 접근: 재귀대명사 현상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erwick, R. C. (1985). *The acquisition of syntactic knowledge*. MIT Press.
- Chomsky, N. (1981). On the representation of form and function. *The Linguistic Review*, 1(1), 3-40.
- Ellis, R. (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nnan, M. (2004).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English verbal morphemes in the grammar of 4-9 year old Bengali-speaking children in the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ssex.
- Joo, H. R. (2003). Second language learnability and the acquisition of the argument structure of English locative verbs by Korean speakers. *Second Language Research*, 19(4), 305-328.
- MacLaughlin, D. (1993).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subset principle. *Annual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17. Boston.

MA.

- Pinker, S.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MIT Press.
-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RAL-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10(1-4), 209-232.
- Wexler, K., & Manzini, M. R. (1987). *Parameters and learnability in binding theory: Parameter setting*. Springer Netherlands, 41-76.
- White, L. (1989b). *Universal grammar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Vol. 1)*. John Benjamins Publishing.

최정아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53-950-5120
이메일: upgrade-3@hanmail.net

이예식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전화: 053-950-5830
이메일: yaesheik@knu.ac.kr

Received on October 27, 2016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19, 2016

Accepted on December 30, 2016